http://www.dkc.ac.kr
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수시3차모집 11.14~12.2 062)520-2555 동강대학

光州日報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특판예금
1년복리 정기예금 연 수익율 5.11%(확정금리)
첨단병원 정문앞 T. 220-1900

광주 9/21℃ 목포 11/19℃ 여수 13/18℃

단기 4344년 (음력 11월 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112호 1판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불타는 농심 26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폐기,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광주·전남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왕겨를 불태우며 한미 FTA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한·미 FTA 반발시위 확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이 광주와 전남 노동계·농민·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은 26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 2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폐기.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광주·전남 농민대회'를 열고 "한·미 FTA는 국가주권을 팔아먹는 문제"라며 "매국 협정, 망국 협정인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와 농민 32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민중대회가 열렸다.

앞서 광주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25일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YMCA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해체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광주YMCA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날치기 비준안 서약 거부와 정부 및 여당의 사과, 국민에게 한미 FTA 협상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26일 오후 8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주최하는 '한미 FTA 비준 무효화'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2200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 5당은 1차 목표를 오는 2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 저지로 설정하고 대규모 장외 집회에 집중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3일, 10일에 범국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고, 다음달 2일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장외투쟁의 전국화를 시도한다.

야5당은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비준 무효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법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자치구 내년예산 인건비도 확보 못했다

75~90%만 본예산 편성…재원 확보 초비상

■광주 자치구 내년 예산

자치구	2012년	2011년	증감율	인건비 반영비율
동구	1580억	1424억	+9.9%	90%
서구	2410억	2340억	+2.9%	100%
남구	1954억	1918억	+1.9%	75%
북구	3618억	3288억	+6.9%	90%
광산구	3190억	2978억	+9.8%	100%

민선 5기 2년째를 맞은 광주지역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커졌지만 사회복지비나 인건비 부담이 더 크게 늘어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 축소나 예산 절감에 나섰다가는 재정 악순환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다. 급기야 인건비 조차 본 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못한 채 광주시의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시 역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7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세목체계 개편으로 재정여건은 조금 나아졌지만 인건비·사업·사회복지 예산 등 세출수요가 대폭 늘어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야할 형편이다.

각 구별 예산 책정현황을 보면 ▲동구 1580억원(전년 대비 9.9% 증가) ▲서구 2410억원(〃 2.9% 증가) ▲남구 1954억원(〃 1.9% 증가) ▲북구 3618억원(〃 6.9% 증가) ▲광산구 3190억원(〃 9.8% 증가)로 조금씩 늘려잡았다.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바뀌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200억원, 서구청 150억원, 남구청 200억원, 북구청 243억원, 광산구청은 17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내년 인건비의 경우 서구와 광산구를 제외하고 북구와 동구는 90%, 남구는 75%만을 본예산에서 확보했을 뿐이다.

구청의 한 예산담당 공무원은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등 꼭 써야할 돈도 급격히 증가해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대책이 안 선다"고 토로했다. 또 "구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건비나 사회복지비 등 필수적인 세출 재원을 마련해 메워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들 자치구들은 매년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도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비나 주민민원사업은 증가하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는 각 자치구의 핵심 재원이 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560억원에서 지난해 25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또 대부분의 국비지원사업은 구비를 보태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시민불편이나 민원 야기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는 추경 편성 때 광주시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시 역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각 자치구는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과세 예상액 선(先)책정 ▲사용처가 정해진 특별교부세의 일반사업비 변경 요구 등으로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한편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주민감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거나 사회복지사업 등 각종 사업에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문화바우처 '그림의 떡'

까다로운 절차에 가맹점 적고 홍보도 안돼

광주·전남 카드 발급·이용률 전국 최하위

정부가 시행 중인 '문화바우처(Voucher)'사업이 겉돌고 있다. 예산을 늘려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가 하면, 모든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넓히는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까다로운 발급 절차와 적은 가맹점 수, 홍보 미흡에 따른 인식 부족 등이 겹치면서 광주·전남지역 활용률은 저조하기만 하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총 170만가구 327만명)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와 구입비(가구당 연간 5만원)를 지원해주는 '문화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11월 현재 전남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문화카드 발급 가능가구(4만3680가구) 중 33.5%(1만4414가구)만 신청하는데 그쳐 제주(24.1%), 강원(30.1%) 다음으로 발급률이 낮았다. 그나마 문화카드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제 관람하거나 구입한 이용률(전국 평균 19.9%)의 경우 9.2%에 불과해 16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예산(24억원)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알려주는 등 홍보도 실시했지만 지역민 호응도는 높지 않았다. 광주도 문화카드를 실제 사용한 이용률(22.6%)이 7대 광역시 중 꼴찌였다.

자치구별 발급비율로 보면 광주에서는 서구(86.3%)가 가장 높았고 북구(58.8%)가 가장 낮았다. 이용률은 북구(19.6%), 광산구(20.7%)가 낮았다.

전남에서는 강진군이 발급 가능가구(1164가구) 중 고작 106가구(10.0%)만 신청, 등록해 발급률이 가장 낮았고, 함평군은 대상 가구(838가구) 중 58.5%(483가구)가 발급받았음에도 고작 1.8%만 문화 프로그램을 보거나 도서·음반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인터넷이나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 노인 대상자들이 불편해 하는데다, 문화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극장 등 가맹점(319개)도 턱없이 부족한 점, 문화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돼 이용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점 등이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관 사업 부서가 바우처 사업 대상자들의 개인별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참여 방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신대학교 FRANCE Festival
프레이즈 페스티발
가스펠 찬양대회 3rd.
예 선 : 2011년 12월 3일(토) 오후 1시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본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참가신청 : 2011년 12월 2일(금)까지 ■참가문의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 062)605-1130
입학 문의 www.kwangshin.ac.kr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